

# 사람 문 개 안락사, 견주는 형사처벌

## 정부, 반려견 안전관리 대책 확정... 맹견 견종 6종 → 8종 확대 개물림 사망사고 유발 뎀 최고 3000만원 벌금·3년 징역 등

목줄과 입마개 착용이 의무화된 맹견의 견종 범위가 6종에서 8종으로 늘어난다. 맹견 소유자가 안전관리 의무를 어겨 사람이 숨질 경우 최고 3년 징역형에 처해진다.

사람을 문 전력이 있는 반려견은 견종과 크기에 상관없이 '관리대상견'으로 분류돼 관리받게 된다.

그러나 사람을 물어 상해·사망사고를 발생시킨 개에 대한 안락사 등을 소유자에게 명령할 수 있도록 한 조치는 논란이 예상된다.

정부는 18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반려견 안전관리 대책'을 논의·확정했다.

앞으로는 맹견의 대상 견종이 총 8종으로 확대된다.

현행법에는 도사견, 아메리칸 핏볼

테리어, 아메리칸 스테퍼드셔 테리어, 스테퍼드셔 불테리어, 로트와일러와 그 잡종, 그 밖에 사람을 공격해 상해를 입힐 가능성이 큰 개 등 6종으로 한정돼 있다. 여기에 마스티프, 라이카, 오브차카, 캉갈, 울프독과 유사한 견종과 그 잡종 등 4종이 추가됐다.

대신 아메리칸 핏볼테리어, 아메리칸 스테퍼드셔 테리어, 스테퍼드셔 불테리어 등 3종은 '핏볼테리어'로 한 데 묶었다.

반려견 사체를 축발한 가수 최시원 씨의 애완견인 '프렌치 불독' 견종은 체고(바다에서 어깨뼈 가장 높은 곳까지의 높이)가 작아 이번 맹견 범위에 포함되지 않았다.

다만 소형견이라도 사람을 공격해 상해를 입힌 이력이 있으면 '관리대상견'으로 구분해 건물 내 협소한 공

간과 보행로에서는 입마개를 반드시 착용하도록 했다. 체고 40cm 이상인 개도 관리대상견이 된다.

관리대상견은 전문가 평가에서 공격성이 높지 않고 소유자가 안전하게 통제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될 때 제외된다.

맹견은 소유자 없이 기르는 곳을 벗어날 수 없고, 외출시에는 목줄과 입마개를 착용하거나 탈출방지용 이동장치를 사용해야 한다. 외국에서 들여오거나 공동주택 내에서 사육할 수도 없다. 어린이집과 유치원, 초·중·특수학교 등의 출입 역시 금지된다.

안전관리 의무를 어긴 맹견과 관리대상견 소유자에 대한 처벌도 강화했다. 안전관리 의무 위반 과태료를 현행 최고 5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상향하고, 상해·사망사고 발생뎀 소유

자를 형사처벌 하도록 했다.

사람이 숨진 경우 30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진다. 사람이 다치거나 맹견을 유기했을 때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2년 이하의 징역을 받는다.

또 개가 사람을 공격할 때는 지자체장이 소유자의 동의 없이도 격리 등 필요한 조치를 하고, 상해·사망사고를 낸 개는 전문가의 공격성 평가 결과에 따라 훈련이나 안락사 등을 하도록 소유자에게 명령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다.

내년 3월22일부터 '개파라치'(신고포상금) 제도도 시행한다. 다만 제도 악용을 우려해 과태료의 20%인 포상금은 1년에 20만원으로 횡수를 제한한다.

이 총리는 회의 전 모두발언에서 "우리나라 가구의 28%가 반려견과 함께 살고 있는데 문제는 안전"이라며 "반려견이(사람을) 해하는 일들이 앞으로도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뉴시스



## “더 새로운 희망 만들어 갈 것”

### 유광찬 전 전주교대 총장, 도교육감 출마 선언

유광찬 전 전주교대 총장이 오는 6월 실시되는 전국동시지방선거 전북도교육감 선거에 출마표를 던졌다.

유광찬 전 전주교대 총장은 18일 전북도교육청에서 출마 기자회견을 열고 “전북교육을 대한민국 교육1번지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그는 출마 회견문을 통해 “더 행복한 학교, 더 안전한 학교, 더 잘하는 학교, 더 평등한 학교, 더 가까운 공동체, 더 새로운 희망을 만들어 가겠다”며 “더 잘하는 유광찬이 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교육은 교육논리로 풀어야지 헌법논리로 풀어서는 안된다”며 “교육감은 교육전문가, 교육학자, 현장장을 잘 아는 현장교육전문가가 맡아야 전

북교육을 살릴 수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유 전 총장은 현 김승환 전북도교육감에 대한 비판을 우회적으로 밝혔다.

그는 “지난 8년 동안 전북 교육의 역량 저하와 교권 만족도 하락에 큰 우려를 표한다”며 “인성 함양과 학력 증진의 쌍두마차로 정책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또 “8년간 정부와의 갈등으로 예산 확보에 많은 어려움을 겪어왔고 전북 내에서도 예산분배 있어 소외와 차별이 심화됐다”며 “어느 한쪽에만 귀 기울이는 편협한 교육감이 아닌 교육가족 모두를 대변하고 대표할 수 있는 교육감이 되겠다”고 밝혔다.

/뉴시스



사랑의 헌혈 나눔 18일 전주시 서신동에 위치한 롯데백화점 전주점 앞 정문 광장에서 전북혈액원과 함께하는 '사랑의 헌혈 나눔 캠페인'이 진행되고 있다. (사진=롯데백화점 전주점 제공)

## 미래형 창의융합과학실 만든다

### 도교육청, 올해 과학교육기본계획 마련 초중고교 100개 학교에 총 30억원 지원

전북도교육청이 올해 100개 초중고교에 총30억원을 들여 미래형 창의융합과학실을 조성할 계획이다. 또 노후 과학실 환경 개선을 위해 10개 학교를 선정, 시설개선 및 기자재 구입비를 지원한다. 18일 전라북도교육청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2018년 전북 과학교육기본계획을 발표했다.

계획안에 따르면 우선 도내 100개 초중고교에 총 30억원을 들여 미래형 창의융합과학실을 조성한다. 2015개정

교육과정에 따라 신설된 '과학탐구실험'의 효율적인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서다. 이에 따라 원활한 교수학습과 실험탐구, 프레젠테이션, 디지털 융합공간이 들어서게 된다.

또 3억원을 들여 초중고 과학실 10개소를 선정해 과학실 시설 개선과 기자재 구입을 지원하고, 전주·군산·익산 4개 중고등학교에 사회복무요원을 통한 과학실험수업활동 지원 인력을 배치하게 된다.

학생주도과학동아리 160개를 선정, 과제연구, 과학실험, 과학체험 등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며 과학문화 소외 지역이 없도록 지역단위로 과학체험한마당, 권역별 과학교실을 운영하고 전북도민 대상 과학문화축전 등도 추진된다.

이와 함께 과학교육 중심 운영 학교 지원사업도 진행된다. 우선 전북과학고등학교 및 과학중점학교에 5억8천을 지원하며, 4차 산업혁명시대에 맞

는 새로운 과학교육을 운영하도록 지역 단위로 과학활동중심학교(17개교)를 선정하고 지원할 계획이다. 그 외 과학과 학생참여형 수업 모델학교, 창의융합교육 연구, 선도학교, 학교내 무한상상실 지원 등도 추진된다.

과학교사에 대한 지원도 강화된다. 전공심화연수 운영, 과학교사학습공동체 지원 '과학교사 수업카페', 융합인재교육 수업나눔마당 등이 운영된다.

/김민근 기자

## 도내 공립학교 시설업무 담당자 직무교육 실시

전북도교육청은 공립학교 시설업무 담당자 직무교육을 19일 오후 1시 30분 전북교육문화회관 공연장에서 개최했다고 18일 밝혔다.

공립학교 시설업무 담당자의 전문성과 역량을 키우고 학교 현장에 대한 지원 강화로 시설업무 부담을 완화해주기 위한 것으로, 공립 유·초·중·고?특수학교의 행정실장 또는 시설담당자 660여명이 참석한다.

이날 교육에서는 시설분야 사업계획 수립 등 일반 행정 사항과 시설공사 집행 및 공사감독 요령, 학교시설 행정업무 및 시설물 유지관리 등

에 대한 설명이 이어진다. 또 2017년도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 결과와 부패방지 제도를 참석자들에게 안내한다.

직무교육이 끝난 뒤에는 시설 분야에 대한 질의와 답변 시간도 갖는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공립학교 시설업무 담당자들의 업무역량을 향상시키고 높은 청렴도를 계속 유지하기 위해 직무교육을 실시해 오고 있다”면서 “시설업무 관계 공무원은 교육청에서 진행하는 시설관련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민근 기자

www.jbe.go.kr  
전라북도교육청  
JEOLLABUKDO OFFICE OF EDUCATION

수업나눔과 평가혁신을 통한 즐거운 학교문화 조성\_ 일곱 번째 이야기

# 14살 소녀들

어느 때와 같이 세 소녀는 집으로 가던 길이었습니.

건너편 횡단보도에 쓰러져 있는 할머니 한 분.

할머니의 상태가 위급하다는 것을 알고, 어딘가에서 휠체어를 빌려와 가까운 병원에서 모셨습니다.

그리고 할머니의 가족이 올 때까지 모두 자리를 떠나지 않았습니.

14살 소녀들의 기지와 사랑의 실천.  
**따뜻한 학생들이 있어  
오늘도 전북교육은 웃을 수 있습니다.**

미안합니다 잊지 않습니다

가난은 학교에서 행복은 교육당에서

지난 4월 전주 우림중 1학년 여학생 세 명(최수빈, 배은서, 박민지)은 효자동 한국토지주택공사 전북본부 근처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다 쓰러진 70대 할머니를 발견했습니다. 곧장 가까운 정형외과로 달려가 휠체어를 빌려다 할머니를 병원으로 모시고 갔고, 할머니의 가족들이 올 때까지 병실에서 곁을 지켰습니다. 이 따뜻한 선봉은 5월 25일, 할머니께서 학생들에게 고마움을 전하기 위해 학교를 찾으면서 알려지게 되었습니다.